

제 2 차 세계대전 중의 구시로

제 2 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전역의 도시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.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떨어지는 잔해와 불길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충전재를 넣은 천으로 된 방공 두건을 착용했습니다. 이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미국 제 3 함대의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른 그리먼 F6F 헬캣(Grumman F6F Hellcat) 전투기가 홋카이도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1945 년 7 월 14 일과 15 일 양일간 구시로를 비롯한 홋카이도의 도시와 혼슈 북부가 공습을 받았습니다.

이 이틀간 구시로는 8 차례 공습을 받았으며, 공장, 철도, 어선 및 학교가 표적이 되었습니다. 시가지에 대한 격렬한 공격의 목적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던 것으로 보입니다. 구시로 시가지의 누사마이 다리는 피해를 입었지만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. 누사마이 다리의 아르데코 양식 돌기둥 중 하나는 강에 떨어졌고(돌기둥의 상부는 박물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음) 철제 측면 부분은 기관총 공격을 받았습니다. 총알 구멍이 뚫린 두께 10mm 가 넘는 누사마이 다리의 철판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 이틀 동안 193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, 5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사망자의 약 60%는 공습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.